

키스해 주는 어머니도 있고
꾸중하는 어머니도 있지만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펼쳐



키스해 주는 어머니도 있고 꾸중하는 어머니도 있지만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키스해 주는 어머니도 있고 꾸중하는 어머니도 있지만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키스해 주는 어머니도 있고 꾸중하는 어머니도
있지만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키스해 주는 어머니도 있고 꾸중하는 어머니도
있지만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